

12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마16:16)

서론

1)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이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다.

① 창3:5~6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② 호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2) 이 죄로 인해 죄책(죄값)으로서 사망이 인간에게 왔으며,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책과 죄성을 갖게 되었다.

① 롬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② 롬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 죄로 인해 온 결과인 죽음과 고통이 임한 모든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① 죄로 인해 온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 분리를 가져왔고, 육신의 해체와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가져왔다. 엡2:1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② 죄성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 하게 된다.

엡2:2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③ 이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 욕심, 집착, 경쟁, 절망, 염려, 두려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

엡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본론

1.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1)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 복음의 약속, 최초의 복음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인간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2)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다.

메시아(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사역을 설명해 주는 예표이다.

3)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주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이다. 마16:16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

1)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고, 행하고 계신다.

히1:1-2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서는 말씀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고, 행하고 계신다.

히4:14-15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속죄 사역을 하실 큰 대제사장으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또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의 일을 이루셨고, 행하고 계신다.

눅1:31-33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신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이기셨고 승리하신다.

결론

성경과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히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